

<2014.05.13.~2014.05.19.>

## 새전북신문

### 도, 운곡습지 강제수용 검토

전북도와 고창군이 한수원 소유의 운곡습지를 강제 수용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수원이 협의매수에 난색하면서 운곡습지 복원사업도 늦어지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12일 새만금환경녹지국은 “그동안 한수원과 협의매수를 진행해왔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며 “앞으로 이같은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김완주 도지사에게 보고했다.

한수원 땅은 전체 복원대상 13만㎡ 중 77%인 약 10만㎡(3만평) 넓이로, 가까운 전남 영광 한빛원전 건설당시 사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4년차인 복원사업은 내년 말까지 총 130억원을 들여 방치된 옛 농경지를 정리하고 탐방시설을 갖추도록 계획됐다. ‘한강이남 DMZ(비무장지대)’로 불려온 이 곳은 3년 전 람사르 습지보호지역으로도 등록됐다. /정성학 기자

## 全北日報

# 고창 운곡습지에서 멸종위기종 ‘담비’ 발견

고창 운곡습지에서 멸종위기종인 ‘담비’가 발견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14일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인 담비가 고창 운곡습지 보호지역의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창 운곡습지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물 Ⅰ급인 수달과 Ⅱ급인 삥이 발견된 적은 있었지만, 담비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비의 몸 크기는 60cm에 불과하지만 호랑이가 자취를 감춘 우리나라

에서는 고라니와 멧돼지도 잡아먹는 최상위 포식자로 알려져 있다.

담비의 발견은 고창 운곡습지의 생태계가 안정되고, 야생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게 새만금환경청의 설명이다.

새만금환경청 관계자는 “담비가 발견된 것은 고창 운곡습지 보호지역의 생태복원사업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이 많이 회복됐다는 증거이다”면서 “고창 운곡습지 보호지역



의 멸종위기야생동물 실체 확인과 행동습성 파악을 위해 습지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를 활용해 생태계를 더욱 건강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정원기자 mkjw96@

## 새전북신문

### 온 누리

### 담비

새만금지방환경청은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인 담비가 고창 운곡습지 보호지역의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최근에 고창 ‘운곡습지’가 도내 내륙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운곡습지는 과거 계단식 논 등으로 개간돼 경작이 이뤄지면서 산지형 저층 습지 훼손지역의 전형이었지만 불과 30여 년 전 운곡댐 건설을 위해 습지 일대 주민들의 이주가 계획적으로 이뤄지면서 상황이 변했다.

하지만 경작으로 훼손됐던 습지가 30여 년에 걸쳐 생태계의 놀라운 회복력이 발휘되면서 원시습지 형태로 자연복원된 것.

특히 현재 운곡습지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급인 수달을 비롯해 법정 보호동식물 6종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물 459종과 포유류 11종, 조류 48종, 양서·파충류 9종 등 총 549종 이상



이 살고 있어, 중서부 내륙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고로 평가된다. 따라서 운곡습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랍사르(Ramsar) 습지로 등록됐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훼손 지형과 물길복원 등 생태복원과 더불어 생물다양성보전, 습지 모니터링 등의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한다.

고창군도 시설개선과 습지개선지역 생태

복원 등의 사업에 70억원(국비 포함)을 투입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자연, 사람이 상생하는 생명의 습지’라는 미래상을 설정하고 앞으로 5년간 △야생생물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터 △생물자원의 건전한 연구공간 △삶의 질을 증진하는 체험의 장 등 3개 정책목표로 서식지 보존 및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담비의 몸 크기는 60cm에 불과하지만 호랑이가 자취를 감춘 남한 지역에서는 고라니와 멧돼지도 잡아먹는 최상위 포식자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인 수달과 2급인 삥이 발견된 적은 있지만, 고창 운곡습지 내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던 담비가 출현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는 고창 운곡습지 보호지역의 생태복원사업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이 많이 회복됐다는 증거인 만큼 앞으로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지켜나가야 한다./이종근(문화교육부장)